

번호 04-5

제 목	국문	청년층의 자기인지건강 관련 요인			
	영문	Factors related to self-perceived health of young adul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기호, 조우현 ¹ , 서일 ¹ , 박종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¹			
	영문	Kee Ho Park, Woohyun Cho ¹ , Il Suh ¹ , Jong Ku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¹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역 학 (○)		전 공 의 (○)		
분 야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청년층의 자기인지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청년층의 자기인지건강 관련 요인을 구명한다.</p> <p>2. 연구 방법</p> <p>국내 4대 인터넷통신 서비스의 하나이며 가입자수가 2000년 3월 현재 235만여 명으로 집계된(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A사 서비스의 가입자 중 만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ID)의 알파벳 순서상 앞에서부터 1,0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Duke Health Profile(이하 DHP라 함)에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네 종류의 파일(file) 형식(훈글 97, MS word, 훈민정음 97, 텍스트 파일)으로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국내 4대 인터넷통신 서비스의 하나이며 가입자수가 2000년 3월 현재 235만여 명으로 집계된(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A사 서비스의 가입자 중 만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ID)의 알파벳 순서상 앞에서부터 1,00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Duke Health Profile(이하 DHP라 함)에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네 종류의 파일(file) 형식(훈글 97, MS word, 훈민정음 97, 텍스트 파일)으로 작성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연구대상자들의 DHP 성적을 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건강을 의미하는 건강 측정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신체적 건강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자기인지건강이었다. 다항순위형 로짓회귀분석의 결과로서 자기인지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은 신체적 건강과 자기존중감이었다. 즉, 신체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인지건강 수준이 높았다.</p>					

4. 고찰

현 상황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전자우편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어서 연구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전자우편의 이용이 보다 보편화되면 보건학 분야에서도 비용-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한 설문조사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말 현재 국민 5.5명당 한 대의 PC를 보유하고 있고(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0), 금년 3월 현재 7세 이상 인구 중 33.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정보통신부, 2000)과, 인터넷통신 서비스의 이용료가 대부분 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층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집단의 속성이 일반 인구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터넷 통신의 일부 이용자, 그 중에서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청년층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Ware 등(1978)이 '전반적인 건강상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는 자기인지건강이 청년층에서는 '전반적'이기 보다는 건강의 세 측면 중 주로 신체적 건강을 반영하며, 또한 개인의 자기존중감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같은 수준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가진 두 개인간에 건강인지도가 상이(相異)할 수 있는 것은 개인간에 각기 다른 자기존중감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에서 자기인지건강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단면연구의 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논문들에서 원인-결과적 인 결론들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논리의 비약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기인지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많은 변수들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성과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서로 다른 조사도구 및 서로 다른 신뢰도와 타당도 등은 앞으로의 연구들에서 숙고하고 극복해야 할 난점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를 고려한 좋은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